

가정의 달
세상의 소금과 빛된 주간

꿈이 있는 교회
섬김이 있는 교회
어제보다 오늘 더 행복한 교회



내가 주와 또는 선생이 되어,
너희 발을 씻었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어주는 것이 옳으니라.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려하여 본을 보였노라.
요한복음 13:14-15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리니
마태복음 7:24

“민음의 뿌리를 굳게 내리는 해”

“성령님의 역사가 감절이나 내게 있게 하소서!” (열왕기하 2:9)



민음
섬김의 교회
church of servants

예 배 WORSHIP

May 15, 12:30 pm

신령과 진정으로 하나님께 드리는 최선의 주일예배

	환영과 축복 사역과 소식 (교회 / 교우)
하나님 앞으로	찬양과 경배 / 찬양팀과 함께 예배기도 / 박진성 집사 주님 가르치신 기도
말씀과 결단	성경말씀 출애굽기 8:1-15 하나님이 축복으로 맡겨주신 자리에서 말씀선포 / 김성배 목사 (결단의 기도)
헌신과 열매 (봉헌 / 나눔)	봉 헌 / 오정은 집사, 유덕하 집사 봉헌찬송 / 나의 생명 드리니 - 2, *4절
살과 세상으로	* 찬 양 / 주께 가오니 * 축 도 / 김성배 목사

*표는 모두 일어 셉니다

예배시간 10분전 휴대전화 점검과 목상으로 준비합니다.
진정한 예배는 교회문을 나서는 순간부터 시작 됩니다.

금 요 찬 양 예 배

찬양과 기도

말씀 : 김성배 목사 / 골로새서 3:1-4

교회와 성도의 거룩한 모습은?

“하나님의 나라”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환영과 교제의 식탁 섬김의 교회를 방문하신 분들을 하나님의 사랑으로 환영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예배후 주일 만찬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성도의 교제에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사역 / 행사

5월은 “가정의 달”입니다. 천국의 기쁨과 평화를 이웃과 세상과 나누는 교회와 성도가 됩시다.

1. 2022년은 믿음의 뿌리를 굳게 내리는 해입니다.
“성령님의 역사가 갑절이나 내게 있게 하소서!”(열왕기하 2:9)
말씀과 함께 믿음의 뿌리를 깊게 내립시다. 건강한 성장, 풍성한 열매와 더 많은 나눔으로 하나님의 칭찬과 천국의 상을 받으시다.
2. 세상의 소금과 빛된 주간 말씀과 묵상, 기도와 순종, 나눔과 격려를 통해, 성도와 교회의 사명을 감당합시다.
3. 정기 제직회 오늘 오전 11시에 각 사역보고, 계획, 및 재정보고가 있었습니다.
4. 오순절 예수님을 깊이 묵상하며, 성령님으로 충만하도록 기도합시다
5. 성경공부와 기도 모임(주일 오전11시-11시 45분)
말씀과 기도는 영혼의 생명줄입니다. 모두 참여합시다.
6. 토요일 새벽기도 (오전 7시) 함께 전심으로 기도하는 시간입니다..
7. 믿음의 뿌리내리기
 - 1) 기도운동 중보기도의 능력을 체험하기
 - 2) 예배 하나님께 집중하는 예배자로 예배하는 결단
 - ▶ 5월의 사역 - 정기제직회(15) 소금과 빛 된 주간(15-21)
 - 선교주간(22-29) 선교주일(30)

♥5월 생일축하♥ 구민(8) 구민우(16) 김진숙(17) 최내권(20)

기도제목

1. 교회와 성도를 섬기는 목회자와 사역자들의 강건함과 사역을 위해
2. 하나님의 은혜로 성도의 안전과 건강(특히, 정홍렬목사, 박진성집사, 최윤정양의 회복과 치유)을 위해
3. 교우들이 청지기의 사명을 가지고 사역하며 직장에서 일하도록
4. 자녀의 신앙교육과 Youth Ministry 2세 사역자를 하나님께서 보내 주시도록
5. 하나님께서 인도하신 새사역 장소에서 새로운 교회의 성숙과 성장의 계기가 되도록

예배섬김이

	5/8	5/15	5/22	5/29
주일예배기도	최내권집사	박진성집사	최선운집사	구민집사
	5/8	5/15	5/22	5/29
주일헌금위원	유덕하집사/오정은집사	김훈태집사/유동숙집사		
	5월			
주일안내위원	구민집사			

말씀노트

말씀노트 Sermon Note

〈지난주일 말씀요약〉 **누구를 위한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인가?** / 출애굽기 7:14-25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위해 이적과 기사를 이집트에서 행하셨다. 바로와 이집트 사람들에게 생명선이었던 나일강의 물은 피로 변하고, 물고기는 모두 죽고, 악취를 내었다. 바로의 술사들도 하나님의 능력을 모방하니, 바로와 이집트는 끝까지 깨닫지 못했다. 반면, 이스라엘은 점차 하나님의 능력을 발견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는다. 결국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고 순종하게 된다. 하나님의 인도를 따르며,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 하나님과 함께 걷게 된다. 이스라엘은 시행착오를 겪으면서도 서서히 변할 수 있었다. 피로 변한 강물을 정상으로 돌려놓는 능력, 생명을 살리며 유익을 가져오는 깊은 영성은 하나님의 선물이다. 예배와 말씀, 기도와 성도의 교제를 통해 하나님의 음성을 듣자. 하나님의 사랑과 관심이 나를 향하고 있음을 깨닫고 항상 감사하는 복된 성도가 되자.

하나님이 축복으로 맡겨주신 자리에서 / 출애굽기 8:1-15

질서가 깨지면, 조화와 아름다움은 사라진다.

고통과 불편을 겪는다.

질서의 회복을 위해,

하나님의 말씀과 뜻으로 돌아가자.

각자의 자리를 찾고 역할에 충실하자.

하나님이 만드신 아름다운 질서 가운데 약속하신 축복을 풍성히 누리자.

하나님이 축복으로 맡겨주신 자리에서 / 출애굽기 8:1-15

바로와 이집트는 개구리가 온 땅을 덮는 두 번째 재앙을 경험한다. 개구리가 사람들의 주거공간 뿐만 아니라 왕궁, 심지어 반죽 그릇에도 가득했다. 이집트 사람들이 정상적인 삶을 영위할 수 있었을까.

무엇이든 있어야 할 자리에 있을 때 아름답다. 있어야 할 자리를 벗어나면 조화와 미를 상실하고, 문제가 발생한다. 고대사회에서 사람들은 다산의 동물을 신으로 섬겼다. 농업을 중시하던 이집트의 나일 강에 많은 개구리의 번식력이 우상화 되었다. 그런데 우상으로 섬기며, 부러워하던 번식력이 큰 고통을 가져왔다. 바로는 모세와 아론에게 이스라엘을 광야로 보내 여호와께 희생 제사를 드릴 수 있도록 허락하는 대신 개구리를 없애달라고 부탁한다. 모세의 기도대로 하나님은 바로가 원했던 그 시간에 문제를 해결해 주신다.

우연하게, 혹은 인간의 능력으로 해결된 것이 아님에도, 바로는 이 사실을 거부한다. 고통이 끝나자, 바로는 마음을 더 완강해져,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않는다. 교만, 자기중심, 고집과 같은 죄의 뿌리는 아주 깊고 튼튼하다. 자신의 자리를 벗어나, 하나님처럼 되려던 하와와 아담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않던 바로는 우리에게 교훈이 된다.

생태계의 아주 작은 질서가 깨져 개구리가 영역을 넘어섰을 때, 바로와 이집트는 큰 고통을 경험했다. 그렇다면 피조물인 사람이 그 영역을 넘어서서 감히 하나님께 도전을 한다면 어떤 참혹한 결과를 초래하겠는가? 자신의 자리를 정확히 알아야 하는 이유이다. 우리의 자리는 피조물로서 창조주 하나님을 경배하는 자리이다.

각자가 자신의 자리에 있을 때 가장 행복하다. 그런데 질서가 깨어지고 있다. 세상과 사람들이 기후변화, 자연재해, 전쟁과 폭동 등으로 고통을 겪는다. 각자의 삶과 교회와, 세상이 하나님의 만드신 질서를 따르는가? 먼저, 부모는 자녀를 하나님의 사랑으로 양육하며, 자녀는 부모를 하나님 말씀 안에서 존중하면서 부모와 자녀 제 자리에 있는 아름다운 가정을 회복하자. 삶을 영위하는 공간과 시간에도 질서가 있기를 소망한다. 우리 삶에 하나님이 찾으시는 질서가 바로 서기를 소망한다.

섬김의 교회도 머리가 되시는 예수님을 중심으로 질서가 세워져야 한다. 목회자와 직분자들, 성도는 예수님의 몸이 되는 교회의 지체이다. 각자의 자리에서 자신 역할을 충실히 감당할 때, 우리 교회는 질서가 서고 조화롭게 된다.

지금 당신의 삶에서 질서가 깨져 있지는 않는가. 혹시 질서가 깨진 것을 발견한다면 바로 세워야 한다. 그 아름다운 질서 속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을 누리자.

말씀적용과 실천노트

Application Note

삼과 신앙

불평과 감사가 거하는 곳, 마음

아이들에게 늘 하는 말이 있다.

“이 세상에는 그 어떤 것보다 전염성이 강한 두 가지가 있어.
하나를 죽이기도 하지만 하나는 사람을 살려.

이 둘 중에 넌 어떤 것을 선택할래?”

아이들은 당연하다는 듯 사람을 살리는 후자를 선택한다.
하지만 우리는 대부분 상황과 마주할 때 전자를 선택한다.
사람을 죽이는 것과 살리는 것, 그건 바로 불평과 감사다.

불평은 나의 심령도 죽고, 다른 사람도 함께 죽게 만든다.
반대로 감사는 나도 살고 타인도 살릴 뿐 아니라 기쁨과 행복을 전염시킨다. 어떤 일이든 아이들이 마주하게 되는 선택 앞에서 전염성이 강한 이 두 가지를 꼭 상기시킨다. 아이들도 자신의 선택에 따라 모든 것이 달라지는 것을 경험했기에 불평과 감사의 기로에서 감사를 선택하려고 노력하고 있다.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네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 잠 4:23

불평과 감사가 거하는 곳은 마음이다. 같은 공간에 있지만 절대 공존할 수는 없다. 마음을 지켜내지 않으면 절묘한 타이밍의 선택에 따라 마음을 채우는 것이 달라진다. 우리는 나도 살고 남도 살리는 감사가 마음에 채워지길 노력해야 한다.

불평을 이기는 힘은 감사와 찬양 밖에 없다.

습관적으로 매 순간 입술에 찬양을 채우고 범사에 감사하는 훈련을 하자. 주어져 있는 것에만 감사하는 것을 넘어 그리 아니할지라도 감사할 수 있어야 진정한 감사인 것을 온 가족이 배워나가야 한다.

하박국의 기도처럼 모든 것이 없어도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며 감사하는 가정이 되자. 소소한 감사, 일상의 감사,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감사, 그럼에도 불구하고 드리는 감사가 자녀들과 가족의 입술에서 떠나지 않기를 소망하며 기도하자.

감사함으로 그의 문에 들어가며 찬송함으로 그의 궁정에 들어가서 그에게 감사하며 그의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 시 100:4

안타깝게도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주님과의 관계를 바로 하려고 하기보다,
말이나 행위를 고쳐서
좋은 열매를 맺어보려고 노력합니다.

그러나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라"가 아닙니다.
진정한 복음을 받아들이면
누구나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진리입니다.

책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삶_유기성> 중에서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 요한복음 15: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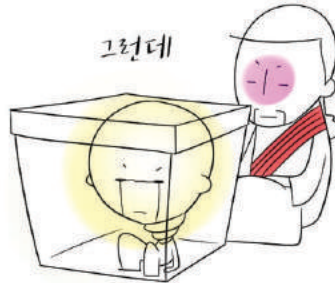


열심히 기도하는 것지만
열심만 있지는 않은가?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그런데



무엇을 비추고 있는가?



“너희가 세상의 빛이라 너희가 나가면 너희가 세상의 빛이 되리라”

“너희가 세상의 빛이라 너희가 나가면 너희가 세상의 빛이 되리라”

시편 50편 14, 15

교회를 섬기는 분들

LEAD PASTOR 김성배 목사

WORSHIP LEADER 박진성 집사

SUNDAY SCHOOL 김진숙 전도사

섬김의 교회는...

- ▶ 최고의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기 위해 최선을 다합니다.
- ▶ 하나님의 사랑에 빛진 교회의 사람으로, 섬김을 기쁨으로 생각합니다.
- ▶ 하나님께서 주신 꿈을 향해 쉬지않고 성장합니다.
- ▶ 어제보다 오늘, 오늘보다 내일 더 행복한 교회와 가정, 개인의 생활을 소망합니다.
- ▶ 하나님의 나라를 모든 사역과 삶의 영역에서 세웁니다.

예배 및 모임 안내

주 일 예 배 / LORD'S DAY WORSHIP : SUNDAY 12:30 PM

주 일 학 교 / SUNDAY SCHOOL : SUNDAY 12:30 PM

주일성경공부 / SUNDAY BIBLE STUDIES : SUNDAY 11:00 AM

금요찬양예배 / FRIDAY SERVICES : FRIDAY 7:30 PM

새벽경건회 / EARLY MORNING DEVOTIONS : TUESDAY~FRIDAY 6:00 AM
SATURDAY 7:00 AM

성 경 공 부 / BIBLE STUDIES : SUNDAY 2:30 PM
WEDNESDAY 7:00 PM

일대일 제자 훈련 / DISCIPLESHIP CLASSES : WEDNESDAY 7:30 PM

교회위치 (Our Location)



섬기는 목회자 : 김성배 목사

847-691-7846 / www.churchofservant.com
800 East Palatine Road, Palatine, Illinois 60074